

이것이 적극행정,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

‘국민편의·권익 증진’ 사례



적극행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

말 그대로 공직자가

'보다 더 적극적으로' 행정을 처리하는 일!

적극행정으로

국민편의와 권익을

증진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.



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‘고요한 택시’를 운영하다



前

전국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
‘고요한 택시’를 도입했으나
시민들의 막연한
거부감 및 민원 발생

✓ 적극행정

- 남양주시 읍면동 반상회를
활용한 시민 설득
- 지역카페 등에 홍보



後

‘고요한 택시’ 사업 안착,
청각장애인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
▶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
사회적 인식 개선



경기 남양주시 노현호 주무관

20년 묵은 규제 빗장을 풀어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하다



前

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20년간
6차례 법안 발의가 됐으나
관계부처·이익집단의
반대로 무산

✓ 적극행정

- 국민편익 차원에서
규제혁신의 필요성 강조
- 관계부처 조정 및
법령 개정 지속 점검



後

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개장
(2019년 5월)

▶ 귀국길 여행객의 편의 제고



국무조정실 임택진 과장

“ 감사 부담에도 불구하고, 17년간 끊긴 뱃길을 열다 ”



前

새만금방조제 공사로 끊긴 뱃길을 잇는 과정에서 해상 점유권 다툼 등 부안·군산 주민 간 갈등 심화

✓ 적극행정

- 잦은 출장 등의 감사 지적에도 부안과 군산을 수차례 방문하며 주민 간의 갈등 조정



後

17년간 막혔던 비안도 뱃길에 도선 운항 가능
▶ 주민불편 해소



새로운 시스템 개발로 근로시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



前

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도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·
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등
문제 발생,
기존의 '사업장 근로시간
점검 프로세스' 검토 필요

✓ 적극행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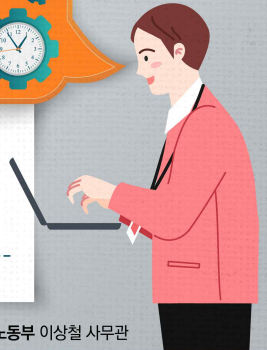
-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해
IT기술 활용, '근로시간 산정·
분석 프로그램'을
고용부 자체 개발·적용



後

근로시간 산정·분석 시간 단축(2개월 → 5분),
모든 근로 형태(특수고용, 단시간 고용 등)의
근로시간 산정 가능

▶ 미지급 임금 시정 지시 등 근로자 구제 확대



고용노동부 이상철 사무관

“요즘 젊은 공무원들에게 소명의식을 이야기하면
‘꼰대’ 취급을 받기 쉽습니다.
하지만 공직자가 소명의식이 전혀 없다면
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.”

오늘 더 달라지겠습니다.

**이것이 ‘적극행정’
‘달라진 대한민국’입니다.**



국무조정실